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제3238호 www.metroseoul.co.kr

News p/3

휴전선 야간경계 '구멍'

Economy p/6

건설업계 '메르스 딜레마'

16일 오후 2시 께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고양이탈을 쓰고 호객행위를 하던 상인이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있다. 이곳 상인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유커를 비롯한 쇼핑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사진=김성현기자 minus@

"망했어요"

명동도 면세점도 발길 뚝… 메르스 충격 경제가 무너진다
관광·유통·운송·금융·농축산 등 산업 전반에 타격 심화

"에휴….요즘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돈 버는 것 같아요. 나와봤자 기름 값만 나가지…."

16일 오후 2시께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 기사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손님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한다. "외국인 손님이 많을 땐 인천공항 한번 씩 다녀오면 그게 기사들에게 큰 수익이었어요.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공항 갈 일도 없네요."

명동 쇼핑가에 도착하자 한산한 거리가 기자를 반긴다. 평소 여기저기서 들리던 중국어·일본어 호객 소리는 사라졌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도 찾아 보기 힘들다.

동물 캐릭터 복장을 하고 호객 행위를 하던 한 상인은 지쳤는지 길 가운데 털석 주저 앉아 있다. 한 화장품 가게 상인은 한숨부터 쉬었다.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된 적이 있나 싶어요. 여기 땅값이 얼만데…. 메르스 때문에 임대료도 못 뽑게 생겼어요."

메르스 사태 초기만 해도 별 타격이 없었던 면세점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다.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은 기자가 혼자 면세점을 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적막했다.

롯데백화점 면세점 매장 직원은 "가장 두려운 것은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전염병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한류고 뭐고 다 소용없다.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 서울 매장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위생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재래시장이 받는 타격은 더 심각하다. 남대문시장은 그야말로 텅텅 비어버렸다. 한 상인은 "30년 장사하는 동안 이렇게 사람 없던 적이 없었다"며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동안 정부는 뭘 한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같은 날 정오께 서울 을지로 일대 식당가. 평일 점심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붐비던 한 유명 식당은 피크타임인 데도 자리는 남아 돌았다. 근처 또 다른 지하 식당가의 유명 한식당은 단체 손님 예약이 취소돼 애를 먹고 있었다. 식당 직원은 "한식이 주 메뉴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메르스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 같다"며 "단체 손님 예약이 많이 끊겼다"고 말했다.

인근 커피숍 역시 예전에는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지만 이날은 3~4 테이블이 비어 있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8~14일 560개 외식업체를 조사한 결과 2주 전과 비교해 평균 매출액이 38.5%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며 경제 전반에 심각한 멍이 들고 있다.

여행·관광업종은 물론 유통·외식업종, 공연·극장가 등 문화산업, 신용카드사 등 금융업, 농축산업 등 경제산업 전반으로 메르스 피해가 스며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한국여행 예약을 취소한 관광객은 약 11만명에 이른다. 예비 예약자까지 포함한다면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방문객도 30% 가량 급감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출은 6월 둘째주까지 약 5~8%가 줄었다.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던 놀이공원도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농촌체험마을의 이달 둘째주 예약 취소율도 90%가 넘는다.

외출 자제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크게 줄었다. 이달 첫째 주말 6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승인금액은 전주에 비해 평균 14% 이상 떨어졌다. 메르스 사태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여름 휴가철 대목 경기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갈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김수정·김성현 기자 ksj0215@

탄저균 불안에도 SOFA 개정 미루는 정부

외교부 "개정에 상당한 시간 걸린다"
"운영·절차 개선이 현실적 방법" 주장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SOFA 개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살상력이 높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배송했지만 미군측이 밝히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알수 없었다. 이로 인해 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 같은 여론을 외면한 채 미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10일 외교부 북미국장 주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개최됐다"며 "그 회의에서 참석한 모든 부처와 기관들은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 하는 가운데 SOFA 운영절차 개선과 한·미 군당국 간 협력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SOFA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SOFA 개정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그것보다는 운영과 절차를 개선해 현실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참가한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오산 공군기지내 7공사령부의 항공의학전대를 찾아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치 경과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이 있고 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호하는 (미군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유와 (실험과 반입 등의) 절차 투명성이 더 잘 협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성 프로젝트는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2년 11월 수립한 프로젝트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다. 오산기지는 물론이고 용산·평택에서도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이를 계기로 드러났다. 배송사고가 없었다면 탄저균 실험이 비밀리에 계속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물무기감시포털(BSP)에 참여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탄저균·사드 반대 집회 후 주한미군사령부로 행진 중인 시민들. 이들은 주한미군 세균전부대와 실험실 철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반대를 촉구했다. /뉴시스

묵념인지 고민인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에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3명이 삼성서울병원 의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9일이나 숨겨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 딱 한글자 고쳤던데"

청와대 거부권 시사
유승민 찍어내기?

국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 본 게 아니면 (기존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기존의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민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자존심 대결에 신경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이전부터 청와대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불거진 뒤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공격받았다.

/송병형기자 bhsong@

8·15담화 입 연 아베…'사죄' 언급도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에게 사실상 NO라는 답변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총리관저에서 홍콩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갖고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 '반성과 미래 일본이 걸어갈 평화 청사진'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일찍이 아시아 인민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각한 반성에 기초해 계속해 세계의 평화발전, 특히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며 "전후 70주년에 우리는 반성에 기초해 전후에 걸어온 길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견지할 평화주의의 이념 아래서, 그리고 국제협조주의와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이념 아래서 지역과 세계평화 안정을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전체적으로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다"며 "일본은 절대로 70년 전 전쟁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연방의회 연설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기대하고 있던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주일대사를 지낸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은 16일 한일관계학술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쉬운 말로 사죄하고, 한국은 이를 계기로 사죄 요구에서 졸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4·29 미의회 연설' 달라진 것 없어
日 대변인 '위안부 진전'도 부인

이날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진전' 발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코멘트는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뭘 보고 진전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윤아기자

무용지물 '열상감시장비'… 불안한 휴전선

<TOD>

휴전선이 불안하다. 군의 야간경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현재 육군 최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에 야간경계를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에서 TOD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해 자정이 넘어서는 TOD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안개로 10m 앞의 사물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 온 일반전초(GP)의 북쪽에는 밀림이 우거져있다. 밀림의 중심으로 갈수록 수목이 가리는 게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TOD가 열을 감지하지 못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열상이 물방울에 분산돼 감지능력은 더욱 떨어졌다. 북한군이 귀순한 GP 전방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는 남대천 지류가 흐르고 있어 안개가 자주 낀다. 이로 인해 귀순 병사는 GP 4m 거리에서 발견됐다. 심지어 귀순 전날 야간 MDL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우리 군 GP 인근까지 접근해 적발됐다.

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10군단 산하 지상포병 구분대와 해군 동해함대 전투함선이 참여한 야간 해상화력타격연습 소식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연습을 참관했다. 북한은 전날 '정부 성명'을 통해 남한과의 대화 가능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타격연습 모습. /연합뉴스

야간경계, TOD에 의존… 밀림·안개속에선 식별 어려워
야간은 기습작전에 최적… 6·25 남침 당시 새벽 4시 기습

군대에서 기습작전 개시는 어두울 때가 최적기다. 기상상황이 나쁘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상대방의 경계가 가장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6·25 당시 새벽 4시에 기습남침했다. 우리 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군이 TOD를 비롯한 각종 야간감시장비를 도입한 이유다. 야간에 인간의 시각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TOD는 우리 군의 야간감시장비 중 핵심이다. 육군 관계자는 "다른 장비들도 있지만 TOD는 전방 또는 해안 등 경계부대에서 야간에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감시장비"라며 "야간에 인원이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야간에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빛을 증폭시켜 보는 장비이므로 주요 경계장비"라고 말했다.

TOD는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체가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온도 차이를 감지해 영상으로 재현하는 장비다. 야간에 적의 주요 접근로와 해안 감시레이다의 사각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열 영상 장비로 한대에 1억8000만원이다. 군이 도입한 TOD의 수량은 기밀사항이다. 휴전선의 어디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 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반도를 횡단하는 휴전선의 길이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배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됐다는 의미다. TOD가 무용지물이라면 고스란히 낭비되는 돈이다.

물론 이에 앞서 북한의 기습을 막아야할 최전방 상황이 걱정거리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이번 귀순 사건에 대해 "기상이 악화돼 관측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GP 경계병들이 청음작전을 성공한 사례"라며 "GP의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귀순 같은 경우에나 해당된다. 기습작전에 통할 말은 아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분리공시 안하니 갤럭시S6 호갱만 7만명"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미시행으로 손해를 본 갤럭시S6 구매자가 7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6 출시 기간인 지난 4월 예약 출시 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사양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시 일주일 후 가입 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약가입 고객이 도리어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양희(왼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6일 국회에 나와 야당이 휴대전화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요금 폐지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한 서비스 및 품질 경쟁 활성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민희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프라인 예약가입 고객이 온라인 예약고객의 약 10배 정도 된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산 고객은 3사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인 8000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 의원은 "갤럭시S6 출시 일주일 만에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예약가입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며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특정 기기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식이다.

현재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으로 2014년 10월 제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분리공시제도가 제외됐다.

/윤정원기자 garden@

새누리, 황교안 단독인준 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부대표단은 내일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황 후보자의 추가 해명과 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협상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 메르스 정국에서 인준안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에 "17일 오전까지는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정원기자

"메르스는 중동 독감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메르스 확산에 휴업했다 최근 수업을 재개한 서울 대모초등학교를 방문해 "메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매년 독감 때문에 예방주사도 맞고 신종이 나오면 새로운 예방주사 맞고 (하는 것처럼 메르스 같은 독감이)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퍼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슈퍼전파자 후보' 속속 출현… 메르스 창궐 경계

3차유행 현실화 우려 증가… "의료인력 속히 강구해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통제망에서 벗어나 많게는 수백 명과 접촉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네번째 '슈퍼 전파자' 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슈퍼 전파자 후보 환자가 격리된 시점부터 최대 잠복기인 2주가 되는 29일 전후가 메르스 사태 진정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36명을 감염시켰다. 첫 슈퍼 전파자의 등장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약하다는 방역 당국의 가설을 무너뜨리며 대규모 확산의 시발점이 됐다.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14번 환자는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72명, 평택굿모닝병원에서 3명을 감염시켜 가장 많은 환자를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가 됐다. 이와 함께 대전 대청병원에서 13명, 건양대병원에서 10명을 각각 감염시킨 16번 환자까지 더하면 이들 3명의 슈퍼 전파자가 감염시킨 환자는 전체 환자의 90%가 넘는다. 이어 4차 감염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슈퍼 전파자 후보는 삼성서울병원과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수백명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한 이들이다.

슈퍼전파자 중 유력한 후보는 16일 대구 남구청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다. 이 환자는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모친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된 후 15일 확진판정까지 약 20일간 구청 근무를 했다. 그는 근무기간 중 회식자리 참석과 공중목욕탕 이용 등 일상생활을 해 직·간접 접촉자가 최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 공무원이 접촉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격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잠복기가 끝나는 29일 전후 감염자 발견시 메르스 종식은 어렵게 된다.

두 번째 슈퍼전파자 후보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실 이송요원으로 활동한 137번 환자다. 그는 지난 2일 최초 증상이 발현된 후에도 9일간 근무하며 456명과 접촉했다.

슈퍼전파자 후보들이 잇달아 출현하면서 메르스의 지역감염이 더욱 확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 후보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인 138번 환자다. 이 의사 역시 증상이 발현한 10일까지 격리되지 않은 채 평소같이 근무를 하며 병원 내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후보는 대전 대청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 감염된 IT업체 직원 143번 환자다. 그는 부산에 돌아와 7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지난 2일 첫 발열 증상을 보인 후 전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지역병원 4곳을 5차례에 걸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 번째 후보는 평택경찰서 경찰관인 119번 환자(35)다. 이 경찰관은 138번 환자와 함께 위중한 상태다. 119번 환자의 감염경로는 16일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 평택박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6월4일 오전 9시20분~10시15분 '서울~평택 누리로 1727호 제3호 객차'를 타고 아산으로 내려갔다. 그후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119번 환자의 감염경로와 행적은 사실상 오리무중이다.

그밖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후 당국 통제 밖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수백 명의 격리 대상자를 발생시킨 90번, 115번, 98번 등도 슈퍼 전파자 후보다.

이처럼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가 뒤늦게 격리된 슈퍼전파자 후보군이 적지 않아서 3차 유행이 현실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중식 교수(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만약 슈퍼전파자가 계속해서 출현하게 되면 지역사회로의 감염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탁상공론을 멈추고 전쟁을 치르는 자세로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정부의 505억 메르스 예비비 지출 의결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방호복을 입을 의료진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관리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대체 의료인력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살아있는 탄저균의 오산기지 배달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저균 반입 미군 고발할 것"

시민단체, 국민고발단 모집

시민단체들이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국내에 탄저균을 반입한 미군을 고발하기로 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50여개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16일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과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하고 22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이 탄저균 등 생물무기들을 보유, 실험, 배양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산 기지 주한 미군은 탄저균 샘플로 제독 실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현재까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기자 acto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메르스 보건당국 장례 중단 통보… 유족 '분노'

감염 우려로 부검 미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대상으로 자택 격리 중 숨진 남성의 사인 규명 부검이 지연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남성은 메르스 관련 1·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감염 우려로 부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원주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A(48)씨가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환자였던 A씨는 지난달 28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발열 증세를 보여 원주시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자가 격리됐다.

A씨는 사망 전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망 후 통보된 2차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을 앓았던 점, 메르스 음성 판명된 점으로 볼 때 일반변사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견 당시 A씨의 가게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에 비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A씨의 부검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부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면서 지난 15일 오전 하기로 한 부검이 돌연 연기됐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장례 일정까지 전면 중단돼 분노했다.

A씨의 유족 측은 "어제(15일) 오전 부검을 끝내고 발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장례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고인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홍원기자 hong@

'포스코 비리' 전정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6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가운데 6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구속기소)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이란 사르마예(sarmaye) 은행과 멜라트(mellat)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여 넣은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된 탓에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이란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애초 위탁받은 992억원 가운데 횡령액이 더 있는지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연미란기자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검찰 고발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 "법적 대응 검토"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72)·김정태(63)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과저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하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외환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해 지난해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은행법 규정에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은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 회원들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고발과 관련,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고발인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이사회 결의 없이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면서 외환은행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폭탄 장착 드론 제거하는 벌컨포 16일 오후 광주 서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군·경·소방 유관기관 합동으로 광주U대회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벌컨포를 이용해 폭탄이 장착된 드론을 제거하고 있다. /뉴시스

檢, '채권매매 공생'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가 채권매매를 매개로 공생 관계를 형성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을 단속한 결과 148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 자산운용부장인 B(45)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거래 관계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수년간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은 공생 고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채권 매매를 의뢰받아 중개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수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해외여행으로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생 관계는 A씨가 해외여행을 대가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채권 파킹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A씨를 기소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판단, 수사해 돌입해 유착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연미란기자

'비자금 의혹' SK건설 압수수색

평택 미군기지 건설과정 10억 빼돌린 정황 포착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해 SK건설 본사와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SK건설과 주한미군 기지 공사현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SK건설 하청업체가 2010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건설현장에서 건설 사무실과 숙소 등을 짓는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주한미군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청업체는 전직 영관급 장교가 대표이며 현재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이미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갔고 어느 수준으로까지 갔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홍원기자 hong@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태 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아일보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요구로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이 잘못됐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과거사위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해직사태에 대한 과거사위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는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홍원기자

KT, 이노에듀 투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내부거래 25% 넘는 경쟁력 없는 자회사에 투자 확대 논란

KT가 자사 계열사 이노에듀(교육서비스)의 경영 실적 악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취임 후 과감하게 인원을 8300여명 명예퇴직 시켜 구조조정 하는 것과는 대조적 모습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이노에듀는 지난해 자본총계액이 -31억5200만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또한 영업손실 66억2000만원, 당기순손실 72억9100만원을 기록하며 2012년 KT로 편입 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내부 거래 비율은 전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KT와 KT 관계사들과의 거래는 지난해 매출 210억631만원 중 53억1500만원으로 25.3%의 비율을 나타냈다.

실적 악화에도 KT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는 여전하다. KT는 올해 4월 14일 유상증자를 결정해 598만주를 신주 발행하고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책정해 총 29억9000만원을 투입했다.

유상증자 후 약 한 달 남짓 지난 5월 21일 97.5% 비율로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7억9500만원이었던 자본금이 1억19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진행한 배경은 누적된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KT이노에듀의 지난해 결손금은 16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부터 넘어온 이월결손금은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황 회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며 14억원이 넘는 결손금이 더 쌓였다.

감자는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결국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결국 지난 4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했던 신주의 대부분을(약587만9000주)사들여 기존 지분율 48.45%에서 79.54%로 늘렸다. 경영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경영효율화를 외치며 비효율 계열사 정리를 하겠다는 황 회장의 경영 방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황 회장은 취임 후 "KT의 경쟁력이 없는 계열사는 통폐합 등을 통해 조절할 것"이라며 개편 의지를 밝혔지만 정반대 행보다.

아울러 KT이노에듀의 임원은 대부분 KT의 주요 핵심부서 현직 임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황 회장 주요경영진의 부실경영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총 4명의 임원 중에 기타비상무 이사 3명은 문정용, 이공환, 류길현씨로 각각 KT의 '출자경영1담당', '인재경영실장', '전략기획실 PM' 등의 현직을 맡고 있다.

한편 KT이노에듀는 이석채 전 KT 회장 시절 '사이버MBA'라는 사명으로 KT로 편입됐다. 이 회사는 이 전 회장의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지냈고,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가 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액면가의 9배나 주고 사들인 점과 이 과정에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참여연대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KT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이 진행됐다. 오는 25일과 7월 9일, 7월 23일 재판이 잡혀있다.

이에 대해 KT측은 "주주들한테도 알렸던 부분인데 경영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재무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본업 실적 부진 전망

88년 이후 지난해 첫 매출 하락
美 상무부 조치, 2분기 전망 암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사진)이 매출 하락 만회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사장은 물류 분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한편 한라비스테온공조 집행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직접 회사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면에는 한국타이어의 실적 부진이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 하락세를 맞았다. 올해도 실적을 만회하기 힘들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486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203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 발생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한국타이어 교체 파문도 발목을 잡았다. 제네시스에 장착한 한국타이어 노블2 제품에서 불규칙 마모에 따른 소음과 진동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내 4만3000여대 제네시스 타이어를 무상교체 처리했다. 올해 나온 2015년형 제네시스는 해외 브랜드인 컨티넨탈과 미쉐린 타이어로 기본 장착 제품을 변경했다.

한국타이어의 2분기 실적 전망도 녹록지 않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된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과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저가 타이어 브랜드와의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유로화 약세가 장기화되며 유럽 시장에서 영업이익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장은 돌파구 마련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조 사장은 최근 물류회사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이달 중순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공고에 따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올해 지분 19.4%를 보유한 한라비스테온공조의 집행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집행위원제를 도입해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주요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한다. 조 사장이 사실상 한라비스테온공조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세계 2위 자동차 공기조절장치 제조업체다.

타이어 분야에 집중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한국타이어가 세계적인 전문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휠'이나 '하부 서스펜션'과 같은 타이어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이번 제네시스 사태를 보듯 타이어 성능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메르스 딜레마… 수도권 견본주택 오픈 '눈치'

메르스로 잇딴 연기… 비수기되면 청약률 떨어질 우려
분양 담당자 "연기 권고 수용했지만 마냥 늦출 순 없어"

부동산 분양 시장 훈풍으로 활기를 되찾은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비수기 전에 분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건설사들이 '메르스여파'로 최근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말 e편한세상 보령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16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도 부천시에 공급하는 부천 '옥길자이'의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지구 내에 공급되는 호반건설의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두 단지는 부천시로부터 이날 현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수도권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용인 지역에 분양 예정인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도 오는 19일에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지만 아직 분양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 지난8일 분양승인 서류를 접수하고 12일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었다.

이 밖에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광교 아이파크 ▲포스코건설 광교 더샵 ▲서울 왕십리 자이 등도 견본주택 일정을 다음주로 미뤘다.

19일 개관 예정이던 용인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도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6월말 예정이던 평택 자이 익스프레스는 다음달로 연기됐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냥 분양일정을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다. 분양시장이 대체적으로 7월부터 비수기에 접어들고 타 분양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건설사가 서둘러 분양을 진행하려는 이유다.

부동산정보업체 아파트투유가 지난 12일 기준 분양한 수도권 단지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순위내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은 평균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 청약을 마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도 평균 16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일주일가량 (견본주택 개관을) 미뤘지만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며 "자칫 추가로 분양일정이 미뤄지면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나 마케팅 비용도 추가되고 하반기에 있는 분양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바른이 세상만들기 1

매년 **5월 마지막주 일요일**은 **'바른이의 날'**입니다

바른이가 되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제일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바른이를 통해 바른이가 되자!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잠재적 치과교정이 필요하며 평균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10명 중 6명이라는 놀라운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여러 후원사 및 협찬사와 함께
바른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뚤어진 치아와 턱관절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해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최

주관

후원

협찬

은행권, 사고뭉치 'ATM' 어떻게 하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사고·수익성 하락 vs 고객편의… '계륵' 신세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사고뭉치로 전락했다.

올해만 다섯차례 카드복제사고가 발생한데다 운영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ATM 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지만 고객의 편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계륵'이라는 평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신한은행 무인점포 두 곳에서는 고객 카드정보 270여건이 유출됐다. 범인들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주말 아침 자동화 코너의 ATM 카드 투입구에 셀로판 테이프처럼 붙이는 형태의 카드 정보 복제기를 설치했다.

복제기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카드 투입구와 비슷했으며 범인들은 복제된 카드정보를 활용해 대만 등에서 약 770만원을 인출했다.

은행측은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을 통해 피해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켰지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기업은행과 3월 수협은행, 4월 우리은행 ATM투입구에서 카드복제기가 부착된 것이 발견된 바 있다.

ATM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은행권에서는 재발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기 수를 축소하는 추세다.

기계구입비와 CCTV 등 관련장비 설치비, 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 등 전체 관리비용이 수수료 수입보다 많아 통상 한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1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4월 기준 국민·신한·하나·외환·우리·농협 등 시중 6개 은행의 ATM 3만6325개로 1년전보다 963개 감소했다.

반면 국민과 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출금·송금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2.7% 오른 2165억원에 달했다.

결국 수수료 수입은 올랐지만 전체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손해라는 계산이다.

문제는 비대면채널 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TM을 없애면 고객의 편의를 외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과 수천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면서도 이익창출을 위해 ATM·CD기 수를 줄이는 시중은행들의 태도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만큼, ATM·CD기 이용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자동화코너를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자동화기기 사업은 수익을 위한 사업모델이라기보다 고객에게 금융서비를 전달하는 채널 중 하나"라며 "수익극대화가 아닌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화코너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높은 비용 시너지효과뿐만 아니라 고객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ATM에 투입하기 전 별도의 부착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국민銀 노사 '임금피크제' 충돌

노조 집회·농성 돌입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12일 임금피크제 개선에 합의하면서 희망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 일반직과 마케팅 직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일반직무와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됐다.

문제는 영업점 창구 현금 출납이 '일반직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모출납이란 은행 직원이 영업점내 금고에서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이는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지점장이 지점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말했다.

한편 노조는 전날 은행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당분간 여의도본점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농협銀 '외화송금 품질우수기관' 수상 NH농협은행은 16일 글로벌 금융기관인 뱅크오브뉴욕(BNY 멜론)으로부터 외화송금 처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국제업무부 문영식 부장(사진 오른쪽)과 Arnon Goldstein(BNY Mellon의 RM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주택담보대출 30%, 빚상환·생계자금에 썼다

대출자 절반이 다른 용도로 가계부채 구조적 문제 심각

주택담보대출자(이하 주담대) 10명 가운데 절반이 주택 구입 외 용도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충당하는 주담대도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이 22조1000억원(50.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담대는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이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의 주된 이유로 주택거래량 증가를 꼽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가 내려간 가운데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다.

다만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주담대를 받아 기존대출을 갚는 '기차입금 상환'이 7조6000억원(17.5%)으로 조사됐다.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도 5조3000억원으로 12.3%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10.3%)과 비교해 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원(16.4%)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주담대 외 대출은 통상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의 주담대가 늘어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규모 증가와 이중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공과금 납부고객 '카드 할부 수수료' 면제

KB국민카드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16일 공과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KB국민카드(체크·기업·비씨·선불카드 제외)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은 2개월 또는 3개월 할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6개월 할부는 2회차부터, 10개월 할부는 3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각각 면제된다.

같은기간 KB국민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5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10명) ▲해피콘 모바일 쿠폰 5천원(2,000명)을 각각 증정한다.

이밖에 오는 26일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 이체하는 고객에게는 자동납부 개시 다음달부터 5개월간 매월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자동 이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백아란기자

하반기 제도 개선… 부동산 열기 달굴까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등으로 거래량 증가 될 듯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을 시작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등 올 하반기에 대거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경직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이 허용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제도 중에서는 새 주거급여제도와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새 주거급여제도는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주거급여가 지원대상은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선정되며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다.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로,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에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된다. 또 사업자를 위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과 절차특례도 적용된다.

이 밖에 올 하반기 내에 변경·도입되는 제도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등이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말 시행된 재건축 연한 축소와 하반기에 추진될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등 재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및 주요 이슈

구분	내용	시행시기
정비사업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40년→30년)	5월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합리화	5월 29일~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하반기 내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하반기 내
금융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7월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12월
주택통계	매매·전세·월세 통계표본 일원화	7월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7월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12월
세금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12월까지
	주택·토지·건축물 재산세 납부시기	7월, 9월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하반기 내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추진	9월 이후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 마련	9월 이후
공급	배곧신도시 첫 입주	7월 이후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	11월 이후
교통	수인선(송도~인천) 개통	12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간 고속도로 개통	하반기 내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개통	2016년 2월
	소사~원시선 개통	2016년 4월
	성남~여주선 개통	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 개통	2016년 상반기

/부동산 114 제공

"다문화가족에 차량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단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차량 8대를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왼쪽 네 번째부터) 홍영표 수은 수석부행장, 김해용 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수출입은행 제공

롯데건설, 부산 '연제 롯데캐슬&데시앙' 내달 분양

| 주간분양 |

부산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건축한 '연제 롯데캐슬&데시앙'이 7월 분양된다.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지하 3층, 지상 16~37층, 8개동, 전체 116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43가구 ▲72㎡ 106가구 ▲84㎡ 536가구 ▲101㎡ 68가구 등 7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아파트가 들어설 연제구는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법조타운 등 26개의 기관이 몰려 있는 행정 중심지역이다.

부산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이 단지 바로 앞이고, 1호선 시청역과 1·3호선 연산역도 도보권이다. 왕복 6차선의 월드컵대로와 번영로가 인접했다. 연산유치원과 연산초·중, 연제중·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이마트, 연산시장, 연제구청 평생학습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부산 재건축 아파트로는 보기 드물게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은 해운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지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지 않다. 여기에 배산, 황령산, 금련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온천천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 등도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연제 롯데

캐슬&데시앙 아파트는 교통·교육·편의시설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다"며 "부산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드물게 평지에 위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7월 중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서 개관할 계획이다. 2018년 11월 입주 예정.

대형건설사 '테라스하우스'에 꽂혔다

아파트 편의성에 단독주택 쾌적성 더해져 인기

#GS건설은 내달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전 세대가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열풍을 불고 온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의 후속 단지다.

GS건설 관계자는 "편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과 같은 쾌적성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겨냥한 게 맞아 떨어졌다"며 "앞으로도 특화된 테라스하우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도 이달 광교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를 분양한다. 대림산업 최초의 테라스하우스로, 전 세대에 테라스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이밖에 한양건설, 화성개발 등도 광교와 삼송에서 테라스하우스르 선보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야외 테라스 공간이 제공되는 테라스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란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인기가 없는 아파트 저층 일부 세대에 주로 적용되다 최근 들어 절반 이상 또는 전체를 테라스하우스로 꾸미는 단지들이 느는 추세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택저널 6월호가 실시한 '2020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뒤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45%였다. 그러나 대답을 한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투시도.

사람들 중 61.5%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아파트에 살지만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편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을 꿈꾸는 수요자를 위해 한 때 타운하우스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에 지어져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 가깝다 보니 보안이나 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타운하우스보다 공동주택의 성격이 짙은 테라스하우스가 대안이 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는 서비스공간으로 넓은 테라스가 펼쳐져 공간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야외텃밭이나 놀이터, 바비큐장 등으로 쓰임새도 다양하다. 외곽이 아닌 청라·광교 등 주요 택지지구에 지어져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접근성도 좋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대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임에도 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며 "쾌적성과 편의성이 모두 높은 주택인 데다, 희소성도 높아 당분간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CJ CGV, 中시장 야금야금… 주가 12.11%↑

<전일대비>

중국 2분기 10억 흑자 전망
베트남 스크린 점유율 48%
현지화 전략으로 승승장구

/CJ CGV 홈페이지 캡처

'CJ CGV'가 중국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연일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CJ CGV의 주가는 전일대비 12.11% 오른 12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메르스 여파에 지난 2일 종가 9만7700원까지 하락했으나, 12일부터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단기 이슈보단 중국의 빠른 성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CJ CGV가 중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캐시카우(주수익원)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중국 영화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CGV 역시 공격적인 출점을 가속화하며 1분기 말 기준 시장점유율을 2.2% 로 확대했다.

황 연구원은 "CGV중국은 1분기 11억원 적자에서 2분기 10억원의 흑자를 거두며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2016년 이후부터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등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중국 점유율 1위업체인 완다시네마의 상장과 견조한 주가흐름은 중국 CGV의 가치평가를 본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상영관은 현재 45개에서 2016년말 95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 베트남에서는 스크린수 기준으로 점유율 48%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향후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윤구 동부증권 연구원도 "중국이 헐리우드의 공세로 예상보다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CJ CGV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의 경우 메르스 여파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하지만, 이는 언제가 지나갈 이벤트라는 게 권 연구원의 설명이다.

권 연구원은 "선두에 서 있는 마블은 물론, 배트맨의 DC코믹스 등 헐리우드 영화 제작, 배급사들은 오는 2018년까지 블록버스터 라인업을 확정했다"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함께 중국 영화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영화시장이 고성장하면 CV CGV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CJ CGV의 중국 영업이익을 2016년 121억원, 2017년 19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중국 박스오피스(흥행수익)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어난 60억8000만 위안으로 세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CJ CGV의 연결대상 상영관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며 "기계약 점포 142곳이 정상화 수준에 도달하면 중국 상영관의 미래 영업이익은 568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2년간 수수료 공짜"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인 S-lite의 신규 고객에게 2년간 무료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웰컴이벤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안정·수익 두 토끼 잡으세요"

한국투자증권
트루 ELS, 150억 한도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8일까지 S&P500지수, HSCEI지수, EURO 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트루 ELS 6010회를 총 15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트루 ELS6010회는 상환조건이 모두 75%로, 만기 3년 동안 6개월마다 세 주가지수 종가가 모두 가입시점의 최초기준가의 75%이상이면 연 4.30% 수익이 지급된다.

만약 만기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기간 3년 동안 세 주가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기준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2.90%(연 4.30%)의 수익이 지급된다.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 기초자산 하락률 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이대원 DS부 부장은 "본 상품은 상환조건이 최초기준가의 75%로 낮아 1차 상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며, 수익률은 연 4.30%로 시중금리 2배 수준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KOSPI200 / HSCEI / EUROSTOXX50 / S&P50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총 11종의 상품도 모집하며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정경기자

삼성물산, 삼성證 지분 매각 검토

| 마켓인사이트 |

제일모직과 합병 앞두고
지분 추가승인 예방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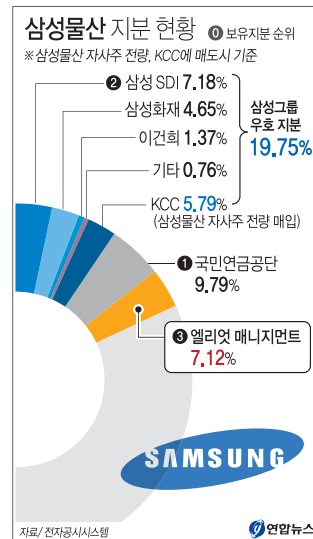
증권업계에서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 성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삼성 측이 삼성물산의 삼성증권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합병 무산 가능성을 주장한 보고서에 반발한 후 전해져서 주목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에 보유 중인 삼성증권 지분 0.26%에 대해 매각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특수 관계인 자격인으로 최대주주 집단에 속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의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게 된다. 이 경우 제일모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새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 23조가 금융 업체의 대주주가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금융위 승인 절차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예기치 않게 절차적 하자가 발생, 주식 처분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삼성증권 지분 보유분을 매각한다면 합병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현황 ⓪보유지분 순위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 KCC에 매도시 기준
❷ 삼성 SDI 7.18%
삼성화재 4.65%
이건희 1.37%
기타 0.76%
KCC 5.79%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 매입)
삼성그룹 우호 지분 19.75%
❶ 국민연금공단 9.79%
❸ 엘리엇 매니지먼트 7.12%
SAMSUNG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연합뉴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가 보유 중인 보통주 자기주식 전량(899만주) 처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다.

특히 이러한 삼성의 내부 검토는 전날 김철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주장에 반박한 이후 전해진 것이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전날 김철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다고 해도 해외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이 이번 합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액이 2조~3조원에 달해 삼성이 합병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삼성은 "해외투자자 중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 표시한 기관은 엘리엇, 네덜란드 연기금 외에는 없다"면서 "해당 보고서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합병에 반대한다고 가정해 합병무산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한 합병 포기라는 가설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시장의 불안만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합병 무산시 발생할 손실을 감내할 주주가 많지 않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그룹 입장에서 합병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엘리엇과의 향후 소송에 따른 위험보다 눈앞에 닥친 후계구도의 확정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증권 지분 매각에 대해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매각 대상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진바 없다"라고 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전일대비 1700원(-2.54%) 하락한 6만5100원에 마감됐다. /이정경기자 jkljkl@

공들인 'G4'… 아메리카 드림 깨지나

LG 美전략 스마트폰 G4 스크린터치 결함 지적에 "펌웨어로 해결" 진화나서

조준호 LG전자 MC 사업본부장 사장이 지난 4월 미국 뉴욕 맨하탄 프리덤 타워에서 열린 론칭 행사에서 G4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가 미국시장에서 출시 초기부터 암초를 만났다. 판매 초기부터 '터치스크린 이슈'가 불거지면서다.

16일 GSM아레나 등 정보기술(IT) 사이트에 따르면 LG전자의 G4 일부 제품에서 터치스크린 인식 오류가 발견됐다.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노크코드에서 터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화면을 쓸어 넘길 때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G4 자체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규격보다 두꺼운 액정 보호 필름을 써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규격 필름을 사용해도 터치가 될 수 있게 하는 등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일부는 이미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G4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조준호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본부장(사장)이 직접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G4를 첫 공개할 만큼 미국 시장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조 사장은 2004년부터 샌디에이고 법인장(부사장)을 지내면서 초콜릿폰으로 북미 시장점유율 1위를 견인한 주인공이다.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인 LG전자는 1위 애플과 2위 삼성전자에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LG전자의 3개월 평균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8.4%다. 이 기간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43.1%, 28.6%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미국 5대 이동통신사에 본격적으로 G4를 공급하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G4는 카메라 성능·천연가죽 커버 등으로 제품을 차별화해 여러 IT 전문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품질 논란은 LG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시 초기 '터치스크린 이슈'로 순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초기품질 문제는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LG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삼성전자, 국내 R&D 투자 이끈다

1조7804억원… 전체 3분의 1 대기업 74% 매출액 1% 이하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7개사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갑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공개한 '대기업의 R&D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R&D 투자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기업은 2013년 현재 7개사다.

삼성전자가 14조78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3조5460억원), 현대자동차(1조8490억원), 삼성디스플레이(1조7170억원), LG디스플레이(1조6748억원), 기아자동차(1조2416억원), SK하이닉스(1조1445억원)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25조9534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 R&D 투자액 46조5599억원의 55.7%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단독으로 31.7%를 기록해 국내 전체 기업 R&D 투자의 3분의 1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R&D 투자액 세계 2위인 삼성전자로 인한 '킹콩 효과' 등 착시현상이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내에서도 최상위 일부 기업과 일부 소수 산업에만 R&D 투자가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537개사 가운데 4분의 3인 74%는 R&D 투자가 전무하거나 투자액이 매출액의 1% 이하라고 지적했다. /조한진기자

삼성 에어컨 Q9000, 무더위에 배송물량 산더미 삼성전자 에어컨 전문 설치기사들이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삼성전자 서서울물류센터에서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을 배송 차량에 싣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 美 B2B 매체 우수 디자인상 휩쓸어

금상·은상 각 2개씩 국내 제조사 중 유일

LG전자는 미국의 유력 기업간 거래(B2B) 전문 매체인 '어플라이언스 디자인(Appliance Design)'이 발표한 '우수 디자인 2015'에서 금상 2개와 은상 2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 기업 중 국내 제조사는 LG전자가 유일하다. 이 매체는 매년 제품의 혁신성, 디자인, 기능, 에너지 절감, 친환경 등을 평가해 분야별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LG 양문형 냉장고(사진)와 스마트 에어컨 모듈은 각각 금상을, 상냉장·하냉동 냉장고와 후드겸용 전자레인지는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어플라이언스 디자인'은 LG전자 가전제품이 세련된 디자인과 인상적인 기술력

이 조화를 이뤘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형 가전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양문형 냉장고(모델명: LSC22991ST)는 미국 시장에서 양문형 냉장고로는 처음으로 매직스페이스를 적용했다. 매직스페이스는 자주 꺼내먹는 음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수납공간이다.

에어컨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스마트 에어컨 모듈(모델명: PCRCUDT3)은 가정용 에어컨을 와이파이(Wi-Fi)망에 연결,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다.

대형 가전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냉장·하냉동 타입의 4도어 프렌치 냉장고(모델명: LMXS30776S)는 보관 식품에 따라 4단계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서랍형 수납공간을 갖췄다.

소형 가전 부문에서 은상을 받은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모델명: LMHM2237ST)는 환기성능을 높여 연기와 냄새를 효율적으로 실외로 배출한다. 세제 없이 물만으로도 간편하게 제품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이지클린 기능을 적용했다. /조한진기자

기아차, 누적수출 1500만대 돌파 임박

'프라이드' 223만대로 최다

기아자동차가 이달 누적 수출 1500만대를 돌파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1975년 첫 완성차 수출 이후 올해 5월까지 1490여만대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돼 이달 중 1500만대 돌파가 확실시 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아차는 1975년 브리사픽업 10대를 카타르에 처음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누적 수출 1500만대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사측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1년 3월 1000만대 돌파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2005년 500만대 돌파 이후 1000만대 달성까지 걸린 기간보다 1년 9개월 단축했다.

500만대를 수출하기까지 30년이 걸린 데 비해, 이후 10년 만에 1000만대를 수출했다.

완성차 1500만대는 기아차의 대표 중형 세단 K5(전장 4845㎜)를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우리나라 최장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416㎞)를 87번 왕복할 수 있다.

지구 둘레(4만㎞)를 1.8바퀴 돌 수 있는 거리와 맞먹는다.

모델별 누적 수출 실적은 소형차 '프라이드'가 지난달까지 총 223만대가 수출돼 최다 수출 모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스포티지 157만대, 모닝 143만대, 쏘렌토 108만대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수출 실적은 북미 603만대, 유럽·러시아 335만대, 아프리카·중동 252만대, 중남미 171만대, 아시아·태평양 129만대로 나타났다.

/이정필기자 roman@

"안 팔린다" 현대차 노사 진실공방 "잘 팔린다"

회사, 파격 판촉 행사에도 5월 내수판매 12.8% 하락
노조, 임단협 압박 꼼수 하루 판매량 증가 주장

최근 국내외 판매부진을 위기라고 진단한 현대자동차 사측에 현대차 노동조합 일부 구성원들이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는 것이다.

16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울상공장에서 발행한 소통라인을 통해 지난달 내수판매가 5만4880대로 전월(6만3050대) 대비 12.8% 줄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무이자할부 등 파격적인 판촉활동도 무용지물일 만큼 환율로 인한 최악의 내수시장 위기"임을 피력했다.

반면 노조 일부는 전날 발행한 판매들불에서 "4월에 비해 5월 내수판매가 저조한 것은 실질근무일수의 단순 감소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4월은 22일을 일했고 5월은 18일을 근무해 실제로 일한 날이 4일(18%)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일평균 판매대수를 따졌을 때 4월은 2865대, 5월은 3048대로 오히려 하루에 판매가 183대(6.38%)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국내영업 판매목표는 6만4000대로 98.5%를 달성한 반면 5월 목표는 5만4000대로 101.6% 초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회사가 내수시장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현장을 압박하려는 노조 무력화 공세라는 것이다.

이들은 "경영진이 2013년 3월부터 일본의 엔저 현상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엔저와 환율 타령을 하고 있다"며 "사측의 엔저·환율 관련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차노조의 전직 위원장들은 올해 임단협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이경훈 현 위원장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이들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가 임단협 교섭에 영향을 끼쳐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임단협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백화점 나열식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국내외 생산량 노사합의로 결정 △토요일 유급휴일제 △주간 2교대 8+8시간 조기 시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영업직군 자동 승진제(정규직 영업사원이 직급별로 일정한 근무 연한과 판매 대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 △직영점 수 제한(2017년까지 455개 이하 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도 포함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판매들불의 경우 일부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라 노조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요구안 그대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는 줄었고, 예년 수준의 것도 있다"며 "다만 생산량 합의나 징계위원회 동석 등의 경영권과 인사 관련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이기인 르노삼성 제조본부장이 고객의 소리를 듣고 있다.

"고객 쓴소리 새겨 듣는다"

르노삼성차 불만사항 청취부스 운영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고객 불만사항 청취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부산공장과 기흥 중앙연구소에서 르노삼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차량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임직원이 실제 차를 사용하는 고객의 불만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해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물은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던 연구소와 공장의 임직원이 생생하게 고객의 불만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 메시지를 그대로 음성으로 재현했다.

오직렬 르노삼성 전사품질 총괄부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 만족"이라며 "고객의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수용해 차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필기자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 협력사와 상생 새 지평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SK하이닉스가 1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20%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박성욱 SK하이닉스사장, 김준수, 박태석 청주·이천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 동일범 삼구INC 대표 등 협력사 대표단,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박 사장과 두 노조위원장의 2015년 임·단협 합의서 서명을 시작으로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 협약'이 진행됐다. 이어 삼구 INC 등 5개 협력사 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대중소 동반성장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협력사에 지원되는 재원을 협력사 직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SK하이닉스와 협력사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도농 상생 협약'이 진행됐다.

SK하이닉스 노사의 상생협력 임금 공유 프로그램은 노사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 속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대중소 기업 노사 상생의 선순환 모델을 이룸으로써 노사관계에 던지는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SK하이닉스 노사의 결단은 협력업체 노사와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SK그룹이 추구하는 행복,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한진기자 hjc@

대한항공, 13조 투자 차세대 항공기 100대 도입

국내 항공 사상 최대규모 제2 도약 발판 마련 나서

대한항공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어쇼 현장에서 차세대 항공기 100대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측은 파리에어쇼 현장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와 레이 코너 보잉사 상용기 부문 최고경영자, 파브리스 브레지에 에어버스 최고경영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0대 규모의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보잉737MAX-8 기종을 총 50대(확정구매 30대, 옵션구매 20대), 에어버스321NEO 기종 총 50대(확정구매 30대, 옵션구매 20대)를 들여온다. B777-300ER 2대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사와 이번에 도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장착할 엔진(PW1100G-JM)의 구매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항공기 도입은 국내 항공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은 이번 항공기 도입에 공시가 기준으로 122억 3000만 달러(약 13조원)를 투자했다.

항공기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보유 중인 B737NG 기종을 대체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소리기자

아시아나항공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의류·잡화 기부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은 장애아동들의 재활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의류와 잡화를 기부받아 지원하는 활동으로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년간 약 62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3만여점의 물품이 캄보디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전달됐다.

이번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부 받은 물품은 저소득층 가정 장애 아동 재활치료 후원을 위해 쓰인다. /양소리기자 10sound@

6/11 2PM LAST TICKET OPEN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SKT, 에릭슨과 차세대 소물인터넷 개발 맞손

SK텔레콤과 에릭슨이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본사에서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왼쪽서 7번째)과 퍼 나빈거 에릭슨 LTE 개발 총괄(왼쪽서 6번째)이 소물인터넷 기술 'MTC'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 제공

기술 공동연구 MOU 체결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에릭슨(CEO 한스 베스트베리)과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에릭슨 본사에서 15일(현지시각) LTE 기반 차세대 대용량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LTE 네트워크에서 저용량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소물(Small Things)' 간의 통신을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인 'MTC'의 공동 연구·개발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은 에릭슨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MTC'는 현재의 LTE 네트워크 상에서 '작은 사물'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기술로 데이터 전송량이 많지 않은 기기에 적합한 저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소물인터넷 기기의 가격 인하를 위한 다중안테나와 광대역 주파수 지원 등과 같은 불필요한 기능의 삭제나 배터리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전력 효율 증대 기술 등 소물인터넷 확산을 위한 'MTC' 관련 세부 목표들도 함께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측은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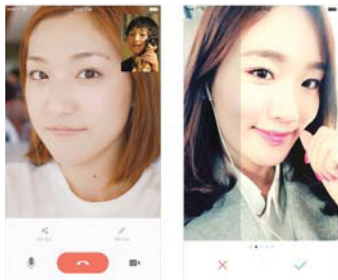
다음카카오 영상통화 '페이스톡' 서비스

안드로이드-iOS도 가능 와이파이 접속하면 무료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엔 영상통화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문자나 음성통화 외에 영상통화까지 즐길 수 있는 '페이스톡'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안드로이드와 iOS 사용자 간에도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시대 새로운 소통 문화를 이끌어온 카카오톡은 텍스트, 이모티콘, 음성통화에 이어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을 지원하며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즐거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톡'을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가 다른 이용자끼리도 카카오톡에서 언제나 영상 대화를 즐길 수 있다. 즉 갤럭시S6나 G4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와이파이(Wi-Fi) 망에 접속해 있을 경우 데이터 걱정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해외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음성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톡 친구의 프로필 또는 채팅방 내 메뉴에 새롭게 추가된 '페이스톡' 버튼을 누르면 영상통화로 연결된다. 영상통화 시 상대방의 모습과 내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통화가 연결된 후에는 이용자가 영상통화 중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고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4가지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양성운기자 ysw@

SKT, 하루 5000원에 만24세 이하 무제한 로밍

T로밍 팅 플러스 무한톡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본격 배낭여행 시즌을 맞아 만 24세 이하 고객이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용량 데이터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팅 플러스 무한톡' 요금제를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T로밍 팅 플러스 무한톡 가입 고객은 하루 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은 3G 서비스를 200kbps 이하 저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모델들이 SK텔레콤의 'T로밍 팅 플러스 무한톡' 요금제를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만 24세 이하 배낭여행족들의 욕구를 고려해 기존 'T로밍 팅 무한톡'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T로밍 팅 플러스 무한톡'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밍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로밍 홈페이지 (www.sktroam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KT-KT텔레캅, 얼굴인식 보안서비스 할인 프로모션

'페이스캅' 최대 20%↓

KT(회장 황창규)는 그룹사인 KT텔레캅(사장 한동훈)과 함께 얼굴 인식기반의 출입통제 서비스인 '페이스캅'을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스캅은 얼굴인식과 출입·근태관리 기능 등을 결합한 보안 상품으로 기존 지문인식이나 카드 인증 방식에 비해 빠르고 정확한 인증이 가능하며 신체 접촉이 필요 없어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특히 중소기업, 공장·대학 기숙사, 병원 등 출입·근태 관리가 중요한 장소에 매우 유용하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매월 이용금액을 지불하는 서비스형의 경우 3년 약정기준으로 월 3만5000원(기본형)에서 3만원으로, 잠금장치까지 제공하는 락 패키지형은 월 4만원에서 20% 할인된 월 3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LGU+ '앱세서리' 체험 매장 늘린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이 연동된 앱세서리 시장이 본격 개화됨에 따라 앱세서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 플래그십 매장을 시작으로 고객이 어디서나 다양한 앱세서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국에 플래그십 매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헬스 ▲레저 ▲생활 등의 영역에서 앱세서리를 우선 출시한다.

헬스분야에는 활동시간, 칼로리, 보행거리 등을 측정하는 손목형 피트니스 밴드와 체성분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등이 있다. 피트니스 밴드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고 보행 외에도 운동 종목을 추가해 소모한 열량을 관리할 수 있다.

레저분야에는 드론과 어군탐지기 등이 있다. 드론은 스마트폰으로 조종과 실시간 스트리밍과 HD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LG CNS, 중기-SW개발업체 위한 클라우드 장터 구축

LG CNS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나섰다.

LG CNS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우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유통 채널이 없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LG CNS SaaS 마켓플레이스(이하 마켓플레이스)'라는 클라우드 장터를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LG CNS는 오는 9월 마켓플레이스 오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영업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에 유치하려는 소프트웨어는 마케팅, 인사, 회계 등 기업의 업무 영역과 보안, 로그 분석, 웹서버, 미들웨어 등 시스템 구동 전반에 필요한 솔루션이다.

/정문경기자

'문어발' 제너시스BBQ 부진 늪으로

무리한 사업확장 부작용
자본총액 마이너스 55억
비비큐글로벌 실적 부진
와타미 등 자회사도 적자

치킨프랜차이즈 비비큐(BBQ)로 유명한 제너시스비비큐그룹(회장 윤홍근・사진)이 부진의 늪에 빠졌다. 무리한 해외사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 자본총액 마이너스 55억원

16일 제너시스비비큐그룹의 지주사격인 제너시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2013년 당기순익 105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 8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는 매출액(108억 원)보다 판매비와 관리비(125억 원) 지출이 초과한 데다 자회사인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 손실이 51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은 비비큐의 글로벌사업부로 지난해 인적분할했다. 비비큐는 지난 2006년 '맥도널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며 호기롭게 미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단기순손실 84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총액은 마이너스 55억원으로 자본금 20억원의 두 배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비비큐의 최대주주인 제너시스는 지난해 인적분할을 하면서 같은 지분율 84.41%로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최대주주가 됐다.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실적부진을 제너시스가 끌어안으면서 이 같은 손실을 기록했다.

제너시스는 지난해 순손실로 지난 2002년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결손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결손금은 27억원이다. 자본총계 역시 300억 원에서 215억원으로 줄었다. 제너시스는 전년만 해도 이익잉여금이 58억원이었다.

그룹은 지난 4월 세계 최대 푸드서비스 업체 캠패스 그룹 산하 레비(Levy)와 업무제약을 맺고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계속되는 부진에 높은 부채로 해외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은 브랜드가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투자가 뒷받침 돼야 하지만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은 부채가 자본금 규모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유명 글로벌 외식 업체와 손을 잡아 투자금을 새롭게 유치하게 되더라도 높은 부채로 인해 고금리로 받을 수밖에 없어 부채를 쉽게 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룹 5개 자회사, 지난해 적자53억원

해외 사업뿐만 아니라 제너시스비비큐그룹의 치킨 외 프랜차이즈 사업들도 고전 중이다.

제너시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의 지엔에스올떡(올떡), 지엔에스엠앤에프(맘앤팜・신돼랑 등), 지엔에스초대마왕(초대마왕・구 닭익는마을), 지엔에스에프앤비(우쿠야), 지엔에스와타미푸드앤베버리지서비스(와타미) 등 5개 자회사는 지난해 총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29억원보다 2배 정도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순손실이 가장 컸던 사업은 와타미로 지난해 18억원의 적자를 냈다. 와타미는 2013년 일본 와타미그룹과 제너시스BBQ가 합작해 만든 법인으로 일본식 정통 외식 브랜드다. 당시 회사 측은 2020년까지 100개 매장에서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강남 본점 한 곳만 운영 중이다.

초대마왕도 지난해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대마왕은 닭익는마을과 닭익는도리마루, 웰빙치킨 콘셉트의 참숯바베큐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프리미엄 미트숍 '맘앤팜'과 삼겹살 전문점 '신돼랑', 돼지갈비 전문점 '왕푸짐' 등을 운영하는 엠엔에프와 분식점인 올떡도 지난해 각각 약 9억원씩의 적자를 내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3년 6억원의 흑자를 냈던 우쿠야를 운영하는 에프엔비 마저도 지난해에는 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그룹 관계자는 "해외 시장 개척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사업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외부 투자금 없이 국내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비비큐 치킨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 신동빈 회장의 '특별한 임원교육' 화제

이달 임원 조찬포럼 시작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사진)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조찬포럼이 화제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이 포럼은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인재 육성을 강조해온 신동빈 회장의 뜻으로 만들어졌다.

16일 롯데에 따르면 임원조찬포럼은 지난해 6월부터 매월 3회씩 롯데호텔 소공점(소공포럼), 롯데호텔 잠실점(잠실포럼), 롯데제과 양평사옥(양평포럼) 등에서 돌아가며 진행되고 있다. 33차까지 진행된 현재까지 포럼에 참여한 누적 인원은 2208명에 이른다.

포럼의 주제는 "자기 분야에 매몰되지 말라"는 신 회장의 주문에 맞춰 실제로 정치・사회・예술・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다.

지금까지 열린 포럼들의 주요 주제는 △행복의 기원(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 △북한의 정치 경제동향과 통일전망(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 △불황, 저성장기의 역발상(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 △공유가치창조(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동성 명예교수) △창의적 사고와 기업혁신(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한얼 교수) 등이었다.

지난 10일 롯데호텔 소공점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인 서상현 박사가 '세계경제의 마지막 성장엔진,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99명의 재직 임원들은 아프리카 시장의 개요를 비롯해 아프리카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개발 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 아프리카 진출 성공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롯데는 조찬 포럼의 대상도 점차 임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넓혀가고 있다. 임원 포럼과 별도로 지난 3일 열린 '이슈포럼'의 경우, 유통・관광・서비스 관련 계열사 임원과 실무 팀장 등 66명이 참석해 '한류, 객관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강연을 들었다.

롯데는 향후에도 포럼을 지속 실시해 현업부서의 임직원들이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빠르게 현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송완 롯데 인재개발원 원장은 "최신 트렌드를 공유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임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그룹사 간 시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 임원들의 자가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CJ, 대학생 문화산업 전략PT 경진대회

CJ그룹(회장 이재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J그룹 문화산업 20주년 전략P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www.cj20culture.co.kr)를 통해 받는다.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5인 이하 팀을 이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다른 공모전과 달리 권역별 지역 예선 경연방식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 사전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설명회, SNS를 활용한 중간과제 부여 등 방식을 도입했다. 최종 결선에 오른 8팀에게는 '멘토링데이'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보양식 재료 최대 50% 할인~"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조영조)은 30도가 넘는 더위에 지친 가족들의 건강과 활기찬 일상생활을 위한 보양식 재료 할인전을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농협유통제공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구제 촉구

소비자단체협, 영국 테스코사에 서한 보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사에 홈플러스 매각 전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피해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한을 통해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매매해 약 23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한 비해 소비자 구제를 위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는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홈플러스 매각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금 테스코는 피해 소비자 구제는 나몰라라 하고 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등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가장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매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형사재판 중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 3월 16일 테스코에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나 한국 홈플러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현기자 minus@

"사람이 미래다" 인본경영 발효명가 샘표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⑱ 샘표

샘표는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부모 워크숍를 열고 있다. /샘표 제공

가족친화적 복지제도 확대
출산 휴가 후 복귀율 100%
'워킹맘' 탄력·재택근무제 도입

올해 창립 69년을 맞는 샘표(사장 박진선)는 창업주 고(故)박규회 회장부터 2대 박승복 회장, 3대 박진선 사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가족친화적 복지를 시행 중이다. 임직원 복지 확대에서 더 나아가 직원 가족까지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수평적인 기업문화, 지나치게 보수적인 한국 기업문화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산후 복귀율 100%… 부모·부부·자녀 워크숍·코칭 프로그램 운영

샘표의 복지 범위는 임직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임직원 가족까지 챙기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춘 게 샘표만의 차별화 된 특징이다.

샘표는 육아와 직장생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워킹맘'들에 대한 배려도 늘리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샘표의 임직원은 출산 휴가 후 복귀하는 비율이 100%(2013년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샘표는 부모·부부·자녀 워크숍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행복한 일터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부모 워크숍'과 '자녀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 부모 워크숍은 임직원들이 부모님과 동행해 1박2일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 워크숍은 체험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며 부모 자녀간에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녀들과 함께 간장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아빠·엄마가 일하는 공간을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자녀 코칭 프로그램'과 '부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부부간 대화의 장도 마련했다. 자녀 코칭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임직원 부부를 초청해 사춘기 등 한참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부 코칭 프로그램은 남편과 아내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말하는 대화 기법이나 서운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톡톡' 튀는 복지…펀데이·휴가 나누기

샘표는 단순히 국내 장수기업을 넘어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타기업에는 없는 톡톡 튀는 젊은 사내 문화를 자랑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펀데이'(Fun day)가 있다. 말그대로 샘표에만 있는 공식적인 노는 날이다. 2010년 7월부터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3개월에 한 번씩 팀별로 근무시간에 팀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문화공연·레포츠·놀이공원 등 놀이 방식에 제한이 없고 비용도 1인당 3만~12만원까지 회사에서 지원한다. 팀별로 펀데이 계획과 후기를 게시판에 올려 전사가 공유, 가장 신나게 보낸 팀에는 경품으로 상품권을 준다.

'휴가 나누기'라는 이색적인 제도도 눈길을 끈다. 2010년 7월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내 연차를 연차가 부족한 동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신입사원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휴가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인기다. 직원 간의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높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팀 빌딩'(team building)도 시행 중이다. 서울 본사·경기 이천·충북 영동·조치원 등 공장, 오송 연구소 직원들이 바나나 보트·땅콩 보트·실내 클라이밍 등을 함께 즐기며 동료애를 다지는 프로그램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전사 직원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됐다. 메일과 전화로 업무 이야기만 나누던 타 부서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샘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근무제·재택근무제 도입
가족 워크샵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부모 워크숍, 자녀 워크숍 등 진행
자녀,부부 코칭 프로그램	자녀와 부부간 대화의 장 마련
펀데이	3개월마다 팀원들이 단체로 여가활동·1인당 3만~12만원까지 회사에서 지원
팀 빌딩	떨어져 있어 전사 직원간 동료애를 다지는 프로그램
휴가나누기	내 연차를 동료에게 나눠주는 제도

공동기획 :

인화·신용·봉사 바탕으로 '가족친화기업' 운영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높아

샘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샘표는 그동안 사람을 중시하는 인화(人和)·신용(信用)·봉사(奉仕)의 사훈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행복한 직장을 목표로 하는 가족친화적 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부분'의 항목 중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과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워크숍에 참가한 샘표 직원 가족들. /샘표 제공

이성진 샘표 인사팀 담당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배려하는 샘표의 기업문화가 인정을 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다"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환경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평가 항목을 토대로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차후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샘표는 지난해 현·전직 임직원이 직접 뽑은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 50'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전직 임직원들이 기업을 직접 평가하는 잡플래닛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총만족도·승진기회·급여·복지·경영진만족도 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보라기자 bora6693@

공항철도 서울역 환승통로 만족도 ↑

지하철 환승시간 대폭 단축 이전 방식은 운임비 내야

공항철도 서울역과 지하철 1, 4호선을 지하에서 곧장 연결시킨 환승통로를 이용하는 환승객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3월28일 개통된 환승통로는 기존 12~15분 걸리던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 환승시간을 5~7분으로 대폭 단축시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서울역 환승통로.

특히 복잡한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별도의 환승통로로 곧바로 연결되니 시간 단축 뿐 아니라 환승하기도 한결 쉬워졌다.

이같은 편리성으로 특히 1, 4호선에서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홍대입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지로 가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공항철도쪽에서는 1, 4호선을 통해 명동이나 동대문, 종로 등지로의 이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의 방식대로 환승을 하려는 이들이 있는 등 공항철도와 지하철 1, 4호선 환승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이전 방식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갈 경우 승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환승을 위해 다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본 운임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한편 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공항역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영되고 있어 공항철도 이용 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열차는 지하철과의 환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직통열차는 지하철,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 4호선에서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이용할 경우 환승통로를 이용해 공항철도로 진입한뒤 게이트에 집표하고 나가 지하2층의 직통열차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직통열차로 서울역에 도착한뒤 1, 4호선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일단 게이트를 나간뒤 지하 3층 환승통로 앞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한국장학재단,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원장 김익수)과 서울시 중구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가장 주요한 국제표준으로, 표준에 맞는 조직 구조, 활동계획, 절차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이번 ISO14001 인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개선함으로써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16일 재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한국장학재단 박승렬 협업본부장은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업무처리 과정이 국제 규격 수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

강강술래 "광복 70주년 '아리랑' 선물"

조정래 소설 뮤지컬로 탄생 30일까지 티켓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 뮤지컬 제작사인 신시컴퍼니가 8년 만에 선보이는 대형 창작 뮤지컬 '아리랑' 공연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0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티켓(1인 2매)을 선물한다.

아리랑은 100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운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한 작품이다.

12권의 소설 속 아픔의 역사를 감골댁 가족사 중심으로 재편했으며 환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를 포함한 50여 곡의 음악들이 기대를 더한다.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담아냈다.

독립을 위해 애쓰는 의식있는 양반 송수익 역에는 중견 배우 서범석과 연기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안재욱이 더블 캐스팅됐다.

어지러운 시대를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양치성 역은 김우형과 카이가 맡는 등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LG아트센터에서 7월16일부터 공연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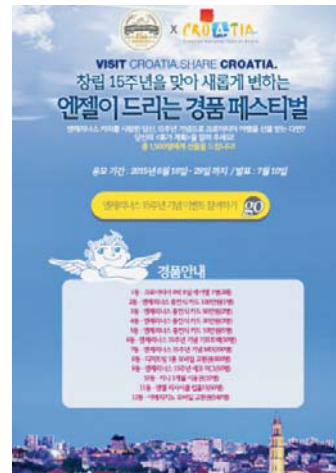
엔제리너스커피

올 여름 크로아티아 여행권 쏜다

창립 15주년 경품 이벤트 선불카드 등 1500명 추첨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1500명에게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엔제리너스커피 공식 페이스북에서 '크로아티아 여행을 선물 받는다면 당신의 휴가 계획을 알려주세요!'라는 설문에 의미 있는 댓글을 달면 심사위원들이 참신성, 실현 가능성, 흥미성 등을 고려해 1500개의 우수작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등(1명)에게는 크로아티아 6박 8일 여행권을, 2등~5등(11명)은 엔제리너스 충전식 선불카드를, 6등~7등(230명)은 엔제리너스 15주년 기프트백과 MD용품, 8등~12등(1258명)에게는 15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디저트빙 모바일 교환권, 지니 1개월 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기간은 29일까지이며 당첨자는 7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아울러 전용 파우치를 포함한 보틀·메모리얼 머그·메모리얼 이중 유리 머그 등 11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15주년 기념 한정판 기프트백을 선보였다.

/김보라기자

Diet?

굶는 다이어트 오히려 몸 망쳐 운동·식이요법·시술 병행해야

휴가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하게 여름철 몸매 가꾸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해서 체중을 줄이다보면 대부분 굶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는 지방보다 수분과 근육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디라인을 얻지 못한다.

근육량을 늘리는 동시에 체지방률을 줄이려면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체에 살이 몰려 있는 상체비만이나 상체와 허리는 날씬한 반면 허벅지나 엉덩이가 발달한 하체비만은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을 해결하는 몸매 관리법을 찾아야 한다.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은 "상·하체비만은 미용적인 이유뿐 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도 관리가 필요한데 고칼로리 음식, 잦은 음주로 인해 내장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지방형상체비만은 당뇨,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 또 부종형 하체비만은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한계를 느낀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다양한 몸매 교정 시술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흡입술은 지방세포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방흡입술이 부담스럽다면 지방세포를 냉각시켜 파괴하는 젤틱이나 셀룰라이트나 단단히 뭉친 국소 비만 부위에 지방 분해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시술,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체외충격파 등의 방법을 시도 해 볼만 하다. /최치선기자

/도움말 :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원장

한국엘러간 신임 지사장 김은영 대표이사 영입

한국엘러간은 김은영 대표이사(사진)를 신임 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전략적 인수합병을 마친 엘러간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높은 성과 달성과 조직 안정화를 이끌 적임자로 김 지사장을 택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화여대 약대와 연세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이후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싱가포르 지사를 비롯한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에서 근무하며 마케팅, 기업전략, 전략적 제휴, 사업부 총괄과 같은 경험을 통해 뛰어난 경영 역량을 보여왔다.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직전에는 한국 BMS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노바티스 싱가포르 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치선기자

star bag

씨엔블루와 한 식구

개그맨 **정형돈**이 씨엔블루·AOA 등이 속한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FNC는 16일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정형돈의 가치관이 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과 부합했다"고 전했다.

'나 홀로 휴가' 주인공

배우 **박혁권**이 배우 조재현의 감독 데뷔 영화 '나 홀로 휴가'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가족액터스가 16일 전했다. '나 홀로 휴가'는 40대 평범한 가장인 한 남자가 10년 전 헤어진 한 여자를 잊지 못해 그녀에게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그리는 영화다.

팬 위한 신곡 발표

힙합 가수 **타이거JK**가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싱글 '반가워요'를 16일 정오에 공개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고마운 편지를 써줬던 팬들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코코엔터 결국 파산

개그맨 **김준호**가 공동대표를 맡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15일 코코엔터테인먼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김준호 측 관계자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채권, 채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녀 감성 아직 남아 있어요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박보영**

박보영(25)은 천생 소녀다. 어느덧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18일 개봉하는 '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이하 '경성학교', 감독 이해영)은 그런 박보영의 매력이 잘 담겨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1938년 경성의 한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다. 박보영은 폐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소녀 주란을 연기했다. 처음 접하는 시대 배경, 그리고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독특한 장르가 박보영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연기는 쉽지 않았다.

"시나리오 선택할 때부터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이만큼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연기했는데 막상 모니터를 보면 생각보다 덜 표현된 거예요. 제 감정의 폭이 생각보다 넓고 깊지 않다는 한계를 엄청 느꼈어요."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박보영은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주란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숨까지 참아가며 감정에 몰입했다. 힘든 수중 촬영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정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결막염까지 걸릴 정도로 육체적으로 고생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연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일화는 박보영이 얼마나 연기에 열심인지를 잘 보여준다.

기숙학교 학생들로 출연하는 또래 배우들과의 연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연기 선배로서 전문 용어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

연약한 소녀로 미스터리스릴러 도전
폭 넓은 감정 연기, 한계 많이 느꼈죠
또래 배우들 챙기면서 더 단단해져
배우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

에는 친구들처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을 챙겨야 촬영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준 현장 경험은 박보영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경성학교'의 원래 제목은 '소녀'였다. 영화의 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목이다. 박보영 또한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스크린에서 한결 같은 소녀였다. 10대 역할을 주로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할 법도 하다.

하지만 박보영은 서두를 생각이 없다. 소녀, 혹은 국민 여동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마다할 생각도 없다. "올해 스물여섯이지만 아직 저에게도 소녀 감성이 남아 있거든요(웃음)."

박보영이 소녀 이미지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앞으로 예정된 작품에선 '경성학교'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최근 촬영을 마친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에서는 연예부 수습기자로 사회 초년생을 연기했다. 다음달 3일부터 방송되는 tvN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는 처녀귀신에 빙의되는 주방 보조 역할로 색다른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박보영은 "지금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했다. "배우로서의 삶도 개인적인 삶도 균형을 잘 맞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촬영할 때는 시끌벅적하게 보내다가 그런 게 힘들어지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또 외로워지면 작품을 하면서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해요." '경성학교'의 개봉을 앞둔 지금, 박보영은 늘 그래왔듯 흔들리지 않고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있을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말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팀 내한

국립극장서 20일 개막

세계 정상 기량의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이 6월 20일~8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한다.

1996년 리바이벌된 뮤지컬 '시카고'는 19년간 미국 브로드웨이를 지키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공연된 작품이다. 전세계 34개국 423개 이상의 도시에서 2만6532회 이상 공연됐다. 한국 공연은 2000년 초연을 시작으로 서울에서만 500여회 공연, 55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성공신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뮤지컬 '시카고'의 원작은 1926년 미국의 관심을 모았던 쿡 카운티 공판을 소재로 쓴 희곡작가 모린 달라스 왓킨스의 희곡 'A Brave Little Woman'이다. 이 작품은 1927년 무성영화 '시카고'와 1942년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록시 하트'로 제작돼 빅히트를 쳤다.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 중에서도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 문화가 발달하던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대중적 소재를 결합시켜 만들었다. 작품의 메인 테마인 'All That Jazz'에서 보여주듯 음악은 재즈풍이 지배적이다. 14인조로 구성된 밴드는 튜바, 트럼펫 등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무대 중앙에서 제 2의 배우 역할도 한다.

올해 오리지널 팀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섹시함으로 무장하고 관객을 유혹하겠다는 각오다. 문의: 1544-1555 /김민준기자 mjkim@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I 탤런트 차 화 연

HOT PHOTO

순수하고 청순하게

오는 22일 컴백하는 걸그룹 AOA가 1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세 번째 미니앨범 '하트 어택(Heart Attack)'의 타이틀곡 '심쿵해'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청순미 넘치는 화이트 스포츠룩을 맞춰 입은 AOA의 모습을 담고 있다. 순정만화 주인공을 떠올리게 하는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이번 앨범에서 AOA는 스포츠걸 콘셉트로 순수, 상큼, 섹시 이미지를 보였다. /장병호기자 solanin@

장나라·서인국 몸개그 대방출

KBS2 월화극 '너를 기억해' 수사 로맨스물 첫 호흡 맞춰

배우 서인국과 장나라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2 새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배우 장나라와 서인국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첫 호흡을 맞춘다.

이들이 나선 KBS2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연출 노상훈, 김진원·극본 권기영)는 까칠하지만 어두운 과거를 지닌 천재 프로파일러(서인국)와 열정 가득한 여성 특수범죄수사원(장나라)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면서 썸을 타는 수사 로맨스물이다.

1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장나라는 "다음회를 궁금하게 만든다. 코믹하면서도 진지한 면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며 "연기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대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해 '미스터백' '운명처럼 너를 사랑해'에서 불안정한 직업을 연기하면서 고생 전문 배우로 통했다"며 "이번엔 안정적인 직업을 맡았다. 크게 고생한 건 없지만 주로 몸개그를 담당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왕의 얼굴'로 첫 사극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인국은 "장나라씨가 작품 보는 눈이 좋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호흡이 기대된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프로파일러가 선보이는 추리의 A to Z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JTBC 방송국 편집실에서 사체가 발견된다. 신원확인 결과 그는 현재 크라임씬2를 연출하고 있는 윤현준PD로 밝혀진다. 크라임씬2 녹화를 앞두고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다.

그와 관계된 크라임씬2 출연자 5명이 용의자로 소환되어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함께 범인을 찾아 나선다. 표창원은 용의자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을 꿰뚫어 보면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스튜디오를 긴장시킨다.

/정리=하희철기자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보석 같은 노총각들 특집으로 정보석, 심현섭, 이형철, 장원영이 출연한다. 꽃중년 정보석은 노총각 후배들을 위한 결혼장려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밝힌다.

◆ tvN '고교10대천왕' 오후 11시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앓는 '화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문화증후군인 '화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지난주에 이어 '제주도 특집'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온다. 육지인들은 모르는 진정한 제주의 맛을 보여주기 요즘 대세 개그우먼 장도연이 깜짝 출연해 거침없는 맛 평가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6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53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7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8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2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9회)	00 맨도롱 또똣 (11회)	00 가면 (7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셰익스피어 인 러브>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도시가 살아난다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맨발의 꿈>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1회) (재)	00 집밥 백선생 (5회) (재)	00 올리브쇼 미니 NEW (14·15회)		40 나도 영화감독이다 (1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삼성(SPOTV+) SK vs 한화(MBC SPORTS+) NC vs KT(SKY SPORTS) 롯데 vs 넥센(SBS SPORTS) KIA vs LG(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07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2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4·3·2회) 30 식샤를 합시다 2 (17·18회)	00 쇼킹 70억 (19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7회)		00 아시아 대평원– 3부 황금산맥 알타이	00 락아웃: 익스트림 미션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6회)	40 수요미식회 (21회)		00 프리미엄 와일드<와일드 콜롬비아>1부		
22시			00 올리브쇼 2015 (10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3회)	00 광해:왕이 된 남자	
23시	00 크라임씬 2 (11회)	00 고교10대천왕 (8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21회)	00 <전쟁의 대가들>벌지전투: 발터 vs 브래들리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9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7회) (재)	00 한식대첩 3 (4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9회)	30 스크리머스 2	

독일·노르웨이 나란히 16강

16일(한국시간) 캐나다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월드컵 B조 예선 3차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멜라니 뵈링거(왼쪽)와 레나 피터만. /AP 연합뉴스

FIFA 여자월드컵

캐나다 이어 중국도 진출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각각 태국과 코트디부아르를 물리치고 조 1,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독일은 16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위니펙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태국을 4-0으로 물리쳤다. 전반 24분만에 선제골을 넣고 후반 내리 3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량차이를 보이며 승리를 챙겼다.

같은 시간 노르웨이도 코트디부아르에 3-1로 승리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2승1무(승점 7)로 동률을 이뤘으나 독일이 골득실차에서 앞서 조 1위가 됐고 노르웨이는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1승2패(승점 3)로 3위가 된 태국은 다른 조의 예선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확정되게 됐다. 코트디부아르는 3패로 탈락했다.

주최국인 캐나다와 중국은 A조에서 나란히 1,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캐나다는 같은날 네덜란드와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로써 1승2무(승점 5)로 A조 1위를 확정지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네덜란드와 1승1무1패(승점 4)로 동률이 됐으나 다득점에서 앞서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네덜란드는 조 3위가 됐지만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뉴질랜드는 2무1패(승점 2)를 기록하며 조 4위로 탈락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 16일 전적

▷ A조

중국(1승1무1패) 2(1-1 1-1)2 뉴질랜드(2무1패)

캐나다(1승2무) 1(1-0 0-1)1 네덜란드(1승1무1패)

▷ B조

독일(2승1무) 4(1-0 3-0)0 태국(1승2패)

노르웨이(2승1무) 3(1-0 2-1)1 코트디부아르(3패)

중사 권하늘, 최초로 센추리클럽 도전

베테랑 권하늘(27·부산상무)이 월드컵에서 국내 여자 축구선수 최초로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을 노린다.

권하늘은 2006년 불과 18살의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았고 9년간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96경기 15골을 기록중이다. 센추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인 스페인전(한국시간 18일 오전 8시·KBS 중계) 외에도 3경기가 더 필요하다. 이번 대회에서 16강을 넘어 4강까지 오른다면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 최초로 여자 센추리클럽에 가입하는 선수가 된다.

한국은 '월드컵 첫 승 제물'로 여긴 코스타리카와의 2차전에서 경기 막판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2-2 무승부에 그쳐 승점1점으로 조 최하위다. 권하늘이 자력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페인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16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 알곤퀸 대학교 훈련장에서 여자축구대표팀 권하늘(왼쪽 둘째)이 동료 선수들과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여자선수 첫 기록 4경기 남겨

권하늘은 "스페인의 경기 영상을 보니 잘 하긴 하더라. 공간을 넓게 쓰는 팀"이라면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그 쪽도 마찬가지다. 강한 압박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5년차 군인으로 계급이 중사인 권하늘은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 스페인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하희철기자

김효주, 국내 최강 전인지·이정민과 맞대결

김효주(20·롯데·사진)가 전인지(21·하이트진로)와 이정민(23·비씨카드)을 상대로 국내 메이저 대회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김효주는 18일 인천 청라지구의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파72·6635야드)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제29회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에 참가해 국내 투어 선수들과 대결한다.

김효주의 타이틀 방어에 국내 여자 골프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전인지와 이정민이 저지선 구축의 선봉에 나선다. /하희철기자

16일(한국시간)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있는 강정호. /AFP 연합뉴스

추신수 '한국인의 날' 행사서 결승 득점

강정호, 멀티히트 2타점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텍사스 구단이 마련한 '한국인의 날' 행사에서 의미있는 결승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로 1득점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44를 기록했다.

텍사스는 2009년 6월 이래 6년 만에 인터리그에서 격돌한 다저스를 4-1로 격파했다. 양 팀 간의 상대 전적에서는 다저스가 11승 9패로 앞서 있다.

추신수는 댈러스 한인회(회장 안영호)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1500명의 한인 동포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타석에 섰다. 25일 만에 다시 1번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첫 타석부터 다저스 우완 선발 투수 카를로스 프리아스의 체인지업을 받아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쳐내 동포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6회 선두 타자로 나와 제구가 흔들린 프리아스에게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 1루를 밟은 뒤 주포 프린스 필더가 친 중전 적시타 때 홈으로 들어와 득점에 성공했다. 팀의 첫 득점이자 결승점이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로 나서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280으로 올라갔다.

1-0으로 앞선 1회말 무사 1, 3루에서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3루주자 스탈링 마르테가 홈을 밟아 1타점을 기록했다. 피츠버그는 1회에만 5점을 뽑아냈다. 팀이 10-0으로 앞선 6회말 1사 2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이후 5일 만의 멀티히트다.

피츠버그는 밀워키에 11-0으로 대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다. /하희철기자

볼리비아, 에콰도르 제압 '이변'

코파 아메리카

'남미 월드컵'인 코파 아메리카에서 초반부터 이변이 연출되고 있다.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던 볼리비아가 에콰도르를 제압하고 8강 진출이 유력해졌다.

볼리비아는 16일(한국시간)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서 에콰도르를 3-2로 꺾었다. 멕시코와 1차전을 무승부로 마쳤던 볼리비아는 1승1무(승점 4)를 기록해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에콰도르는 2연패로 사실상 탈락이 유력해졌다.

16일(한국시간)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2015 코파아메리카 A조 2차전에서 에콰도르를 3-2로 꺾고 기뻐하는 볼리비아 대표팀 /AFP 연합뉴스

볼리비아는 전반 5분 만에 로날드 랄데스가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앞서나갔다. 이어 전반 18분 스메드버그-달렌스가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뽑아냈고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까지 성공하며 일찌감치 3-0으로 달아났다.

에콰도르는 후반에 반격에 나섰다. 굼히기에 돌입해 수비적으로 나선 볼리비아에 후반 3분 에네르 발렌시아가 만회골을 터뜨렸고 후반 37분 밀러 볼라노스가 추가골을 넣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점을 넣지 못해 패배했다. /하희철기자

Must Mobilize Social Infrastructure to overcome MERS

<메르스 사태 극복 위해 사회적 인프라 총동원해야>

MERS is spreading rapidly and out of control.

Money consumption is being held back in and out because of economic pressure. Korea's reputation is dropping as well.

But people are still pointing out that there Korea is not doing a good enough job at controlling this disease.

Also, people started to have doubts on controll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in local areas.

If this continues, the community will be broken. Health and Medical Union proposed a public statement that now is not too late to mobilize full societal infrastructure to end this war against MERS.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내수소비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도 하염없이 추락 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위험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국에 "지금이라도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PAGODA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4						8	
				4	1	3	9	7
	2	5			4	6		
		3		7		2		
	8	1			5	9		
				6	2	8	3	4
	3						1	
			1					

2		7				4		6
		3	6		8	5		
	7	2	3		4	1	6	
	5		1		9		2	
	8	4	2		5	7	9	
		9	8		2	6		
7		8				9		1

스도쿠 정답

1	9	8	2	3	7	4	6	5
3	4	7	5	9	6	1	8	2
2	5	6	8	4	1	3	9	7
9	2	5	3	1	4	6	7	8
4	6	3	9	7	8	2	5	1
7	8	1	6	2	5	9	4	3
5	1	9	7	6	2	8	3	4
8	3	2	4	5	9	7	1	6
6	7	4	1	8	3	5	2	9

8	6	5	9	4	7	3	1	2
2	9	7	5	3	1	4	8	6
4	1	3	6	2	8	5	7	9
9	7	2	3	8	4	1	6	5
3	5	6	1	7	9	8	2	4
1	8	4	2	6	5	7	9	3
5	3	9	8	1	2	6	4	7
7	2	8	4	5	6	9	3	1
6	4	1	7	9	3	2	5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반복되는 업무에 답답… 자립해도 될까요
욕심내지 말고 절약·부지런함 갖추시길

피노키오 남자 76년 8월 10일 10시반

Q 메트로 신문을 보다가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읽고 상담을 올립니다. 공작기계를 만드는 중소기업 생산부에서 마시닝센터 작업자로 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그리 즐겁거나 보람 찬 것이 없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지내고 아직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결혼 할 때마다 청첩장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기계를 만지면서 살아야 할 팔자인지 아니면 제 나름대로 자립하여 자수성가 할 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피노키오님의 사주는 일주(日柱:생일)가 경신(庚申)일주로 신월(申月)에 태어났으므로 기운이 금(金)많은 사주이며 남자의 사주에서 이성을 나타내는 재성(財星)인 목(木)의 기운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여 배우자감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면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官星)이 비견(比肩:나와 동급의 오행)과 형(刑)을 당하고 있으며 귀문살(鬼門殺: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상태)이 동하여 직장에 대한 회의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란 60갑자(甲子)의 흐름 속에서 개개인들은 알게 모르게 운의 시험대에 놓입니다. 특히 재운(財運)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사주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며 작은 부자는 개인의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다(대부유천소부유근;大富由天 小富由勤)고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짧은 시간에 타당한 재물외의 재물을 얻기 어려우며 갖게 된들 오히려 직장을 내놓는 경우가 됩니다. 자립하고 자수성가하려는 기대심리는 있으나 재관(財官)이 형(刑)으로 충돌되니 돈 버는 재주가 약하다고 봅니다. 7월 신(申)과 태어난 일주 신(申)이 겹치면 현실의 이성적인 판단이 힘을 잃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신세의 불편함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리를 맞게 되는 격이지요. 대단한 사업이나 부자까지는 꿈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칫하면 직장생활도 가둬지는 것 같고 소통이 안 되어 갖고 있는 돈마저 고갈될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그 돈 마저 없다면 완전 빚지는 신세가 되니 결국 이럴 때 요구되는 지혜는 욕심내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현실 절약과 부지런함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7일 (음 5월 2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입니다. **60년생** 서남쪽이 길방입니다. **72년생** 유망한 업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84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49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1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세요. **7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 나겠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2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더욱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51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87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2년생 남쪽은 좋지 않으니 여행지 선택을 잘하세요.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6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53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것입니다. **65년생** 이곳저곳에서 이익이 생깁니다. **77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89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54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90년생** 동남방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5년생 매사에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7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79년생** 어느 곳으로 가든지 좋습니다. **90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어야 합니다.

56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92년생** 능력을 점검하고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69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81년생**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93년생** 안에서 찾으려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58년생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70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2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94년생** 휴식을 취하세요.

59년생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1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좋지 않습니다. **8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95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메르스 공포, 국민이 겁쟁이라서?

송병형의 판생각

대학시절 생물심리학 전공수업 실험실에서 들은 말이다. "고양이도 쥐처럼 네오포비아(neophobia)가 있는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거 같아 걱정이다." 포스트닥터를 갓 마치고 심리학 교수진에 합류한 선배의 말이었다.

수강생들은 당시 어느 회사가 내놓은 식품첨가물이 고양이의 행동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중이었다. 네오포비아란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다. 자연과학이 된 현대 심리학은 공포마저도 계량화가 가능하다. 신경세포 간 전기화학적 신호전달을 매순간 기록하고 뇌세포의 구조변화를 분석하면 된다.

다행히 네오포비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들이 고양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별 경쟁까지 벌인 결과다. 우리 조만 해도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해가며 우리 조가 맡은 고양이에 정성을 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수업을 재개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독감 종류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라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건강습관을 잘만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민들의 일생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번역'하면 "신종 독감에 불과한 메르스에 대해 국민적 네오포비아 현상이 만연해 있다. 사회적 불안과 경기 침체는 네오포비아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다.

네오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가진 사람이 그 공포감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의 말이다. 처음 보는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음식을 권하는 게 그런 이유다. 물론 부모가 무작정 "걱정말라"고만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보통은 부모가 아이 앞에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포 전문가로 알려진 폴 슬로빅 미국 오리건대 심리학교수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메르스 공포를 진정시키려면) 일단 방역작업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가 제일 사안을 잘 알고 있으니 무조건 지시를 따르라'거나 '비이성적 행동을 삼가라'는 식의 태도가 있는데 많은 위기 사례를 보면 이런 대처는 사람들의 분노를 산다"고 했다.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박사는 최근 방송에 나와 "일부 사람들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나 어떤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나 보건당국의 통제, 특히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며 "리더십의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부장

황교안 인사청문회,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기자 수첩

윤 정 원 <정치부 기자>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는 다르지 않았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그동안 불거졌던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종교적 편향성, 국정원 댓글 등 정치적 사건 대처, 수임 로비 등의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쏠리는 바람에 청문회는 여론의 주목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의 최대수혜자는 황교안'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는 애초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황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기에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이 이뤄질 리 만무했다. 자료가 없으니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그저 추궁에 그쳤고 황 후보자는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1차적인 검증에 협조해야 할 법조윤리협회 역시 검증은커녕 은폐에 앞장섰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다. 사전 검증시스템이 미국 청문회의 중요한 과정이자 특징이다. 미국은 공식적인 연방수사국 조사 이전에도 미국 사회 자체적으로 검증을 상시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 배경, 직업, 교육 배경, 세금 납부와 전과뿐 아니라 각종 소소한 범칙금 부과 여부까지 검증 대상이 된다.

1993년 연방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조 베어드 코네티컷주 변호사의 사례만 보아도 미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상원 인준 청문회만 통과하면 미국 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이 될 터였다. 그러나 2년 동안 그가 불법체류자를 운전사와 유모로 고용한 전적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됐다. 베어드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권자들은 상원의원들에게 그의 낙마를 요청했고 결국 베어드는 청문회 도중 사퇴했다.

오바마의 정치적 스승이라 일컬어지던 톰 대슐 상원의원 역시 지난 2009년 세금 체납 관련 문제로 보건부 장관에서 낙마한 바 있다. 대슐은 3년 동안 세금 12만8203 달러와 이자 1만1964 달러 등 모두 14만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가 보건장관에 지명되자 뒤늦게 이를 납부했다. 이에 여론이 악화, 그는 보건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인사청문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다. 기본적인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르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정쟁의 판이 아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과 역량을 검증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여름철, 곰팡이로 괴로운 화장실

"어떻게 청소하지?"

소비자 119

식초·베이킹 소다 활용 타일 얼룩·배수구 소독 린스로 욕조 물때 제거

날씨가 더워지면서 욕실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항상 물기가 있는 욕실은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물때와 곰팡이는 악취의 주범이 될 수 있어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타일에 낀 곰팡이는 식초와 소다 푼 물로 해결

벽면과 바닥 타일의 얼룩과 곰팡이는 소다·식초·물을 1 대 1 대 1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를 활용해 곰팡이 핀 부분에 뿌려 수세미로 닦아내면 된다.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나 타일 사이는 칫솔을 이용하면 말끔하게 제거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홈즈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홈스타 뿌리기만 하면 곰팡이 싹', '루크 욕실용 곰팡이방지 훈증제'등 물곰팡이와 세균을 제거해 주는 제품으로도 편리한 청소가 가능하다.

◆욕조 물때는 린스로

욕조에 생기는 물때는 수돗물의 칼슘성분과 비누찌꺼기가 원인이 되는데 이 물때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마른 수건에 쓰다 남은 린스를 덜어 욕조 등을 닦아내면 된다. 수도 꼭지는 치약을 묻힌 칫솔로 닦아주면 곰팡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세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무균무때 프리미엄'은 올인원 세정제로 욕조나 변기뿐만 아니라 주방 싱크대·가스렌지 등 곳곳의 묵은 때를 제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거품 타입의 '홈즈 퀵크린 욕실용'을 사용하면 욕조 등에 자리잡은 때 제거와 99.9% 항균효과까지 볼 수 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배수구 소독에 이용

욕실 악취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배수구는 수세미로 청소하기 힘든 곳이다. 칫솔이나 집게 등으로 머리카락을 제거한 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은 물을 부어주면 된다. 거품이 생기기 시작할 때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살균 소독과 악취제거에 효과적이다.

청소 후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성분을 제거해주는 방향제를 놓아 두면 쾌적한 욕실 유지에 도움이 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인 사

■ 교육부
△부이사관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장 김태형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김보엽 ▷한경대학교 사무국장 함석동 △서기관 ▷기획담당관 박준성 ▷교원정책과장 배동인 ▷지역대학육성과장 유정기 ▷홍보기획팀장 구영실 ▷중앙교육연수원 채홍준 ▷순천대학교 산학연구지원과장 이동익
■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파견 정기준
■ 강원 강릉시
△서기관(4급) 승진자 ▷김남대 ▷김봉대 △사무관(5급) 승진자 ▷배항규 ▷심교육 ▷이종태 ▷이철희 ▷최윤순 ▷김은희 ▷신재흥 ▷이현주 ▷서원각 ▷조수현 ▷황남두 ▷박동균
■ 전주문화방송(MBC)
▷경영기술국장 김병헌 ▷보도국장 마재호 ▷편성제작국장 송인호 ▷광고사업국장 정태후 ▷경영심의부장 황일묵 ▷기술부장 정방원 ▷취재부장 이종휴 ▷영상제작부장 김종민 ▷편성제작부장 장인석 ▷기획제작부장 김태희 ▷광고문화사업부장 함대영
■ KB생명
△신규 선임 ▷상품개발부장 김의배
■ BC카드
△선임 ▷영업부문장 채종진(부사장) ▷인재경영본부장 채병철(상무)
■ 경향신문
▷대표이사 사장 이동현 ▷상무이사 김봉선 ▷〃 김석종 ▷사외이사 김승열 ▷논설주간 이대근

부 고

▲오상자씨 별세, 위영석(한라일보 뉴미디어총괄팀장)·인석(롯데호텔제주)·용녀(표선흥삼흑돼지)·미란·미순(에덴슢어린이집)씨 모친상, 홍미진(제주도 소통정책관실)·김경아 시모상, 김명환·한정준(서울중랑하수처리사업소)·고성완(해태제과 제주영업소) 장모상 = 15일 오전 7시 31분, 부민장례식장 제3분향실, 발인 18일 오전 7시(064-742-5000)
▲조희관 씨 별세, 안승욱(경남대학교 명예교수)씨 모친상 = 16일 오전 9시, 부산인창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051-464-5858)
▲이성임씨 별세, 김세진(삼성 라이온즈 홍보팀 부장)씨 모친상 =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031-787-1500)
▲김숙자씨 별세, 최경주(교보증권 채권영업팀 상무)씨 모친상 = 15일 오후 1시,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수국실, 발인 17일 오전 7시(031-218-6592)
▲김연순씨 별세, 진동규(전 대전 유성구청장)씨 모친상 = 15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042-825-9494)

기사제보=02)721-9861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허니문 주말 상담회

예비 신랑♥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던킨 도너츠
농협은행
카페 7그램
공평 갤러리
하나투어 본사 2층
치킨뱅이
삼성생명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호선 종각역 3번출구
종각역
피자헛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1 발리 6일

푸리 2박+불가리 오션뷰 2박

1,830,6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발리(4) ● 9월 한정특가
- 빌라 내 레스토랑 디너 1회와 런치세트 포함
- 발리 문화 체험 및 우붓 관광, 시내관광 포함
- 푸리 누사두아 디럭스룸 2박+불가리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 2박
- 4회 마사지 포함
  - 아로마 오일 마사지, 초코렛 스파 2회, 황실 전통 지압 마사지

02 파리/스위스 7일/8일

NOVOTEL TOUR EIFFEL 호텔

3,323,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0/1)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한국인가이드의 편안한 공항↔미팅&샌딩서비스 포함
- 하나투어 허니문 전용 테이블 및 예약제 운영 스위스 특식
- 야간 에펠탑 전망대(2F), 세느강유람선과 파리 야경투어 포함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90,9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7월 4일~12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04 푸껫 5일

르네상스 풀빌라 3박

1,0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7월~10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푸껫(3) ● 여행용 캐리어 24인치 제공(커플당 1개)
- 커플 500바트 현지화폐 축의금 제공
- 1인 만원 추가시 $130상당 선택관광 포함
- 피피섬, 팡아만 관광 포함

예약문의 02)2127-1234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